

혁신도시 청사 착공 질질끄는 한전

내년 6월로...조기 활성화 큰 차질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전할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당초 예상보다 6개월 늦은 2011년 6월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 2012년 말에 완공된다.

한국전력 이도식 관리본부장은 26일 나주시 금천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홍보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전

남도 혁신도시 건설지원단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시행사 등이 마련한 2012년 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계획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이날 보고한 ‘한국전력 이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월26일까지 혁신도시 부지(14만9천372㎡) 내 신청사 기본

설계 공모를 마감한 뒤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를 끝낸다. 이어 2011년 1~5월 청사공사를 발주하고 6월에 착공, 2012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이와 관련 “부지매입 계약 등 이전 준비가 비교적 빠른 한전이 이렇게 늦어지면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15곳 중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이날 최소한 올 하반기에는 청사건립에 들어가야 혁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건의한 직후, 한전이 곧바로 이를 묵살한 셈이다.

보고를 받은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승인에 따른 청사 설계 부지 매입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라온호 얼음깨고 전진

우리나라 첫 쇄빙선 아라온호가 26일 오후(한국시간) 남위 74도 47분 서경 137도 24분 서남극 해상에서 3노트로 1m 두께의 다년생 평탄빙을 대상으로 첫 쇄빙능력시험을 하고 있다. 아라온호는 앞으로 얼음간 선체성능 시험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세종시 블랙홀’ 대책 원론만 되풀이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광주·전남을 찾은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 등 광주·전남의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관련기사 3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한 뒤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이 광주·전남의 광산업이나 LED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산업과 중복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세종시는 기초과학과 이론, 광주·전남지역은 응용 및 응용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세종시에 남은 땅은 10만~20만 평 정도로, 외국인에게 주로 분양될 예정에 있어 지역에서 우려하는 블랙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세·재정적인 혜택 역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으로 인한 광주·전남의 피해

를 막을 대책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했으나 정 총리는 명쾌한 답변을 피했다.

박 시장은 “광산업과 LED산업 등 광주의 미래산업이 걸음마를 떼고 막 성장하는 단계에서 세종시로 대기업들이 몰려들어 같은 산업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지사도

오늘 세종시 입법예고

野 “총리해임안 낼 것”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정 처관은 전일 정비에 나서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개정안 제출 시점을 3월초로 전망하면서 정치권의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요구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이 필

요하고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에 맞서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총리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순리와 절차를 국민여론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정

“전남은 5~6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오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같은 분야를 세종시에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이를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또 ▲동북아 상품거점소 광주 설립 ▲LED 조명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광주 R&D 특구 조기 지정 및 육성 ▲호남고속도로 무안공항 경유 ▲한국 국제산업단지 개발 등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정부에서 해결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며 “동북아 상품거점소는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 설립 장소를 논의할 것이며,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는 법·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영산강살리기 2공구 축산보 현장 등을 방문한 뒤 귀경했다. 정 총리의 방문에는 주호영 특임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임재민 지식경제부 1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 등이 동행했다.

/윤현석·김지을기자 chadod@

권의 불통과 속도전 등 2대 고질병을 국민의 힘으로 과감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후 제출하려면 총리해임건의안과 관련, “2월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따른 세종시특별법·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입지개발법 등 5개 세종시 관련법을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해당부처로부터 접수한 뒤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고, 영어내신·면접만 본다

2011학년 입시부터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 토플, 토익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나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등은 입학전형 때 완전히 배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외교 입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시안 세부

계획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교,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교는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범위에는 외교, 국제고 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도 포함된다.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성적 등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형요소에서 제외된다.

특히 외교고와 국제고는 중학교 2~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로만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고,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연합뉴스

